2001년 양계업 새해설계

살처분보상은 양계산업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결과제

김 중 설
(전북양계축협조합장)

다사다난했던 경진년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신사년 새해를 맞이한 양계인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대해 본다.

그 동안 우리 경제는 IMF 이후 소득감소와 실업률 증가 등 온 국민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우리 양계업 또한 소비 감소로 인하여 생산농가는 물론 관련 산업전체가 침체를 가져왔음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1997년도부터 시작된 닭고기 수입개방이후 엄청난 양의 수입 닭고기와 계란이 들어와 많은 생산자들이 고충을 겪어 왔다. 통계에 의하면 닭고기의 경우 금년도 12월 예상 물량까지 합하면 약 63천여톤에 이르고 있다. 이는 1999년도 물량에 비할 때 약 17천여톤이 증가한 물량이다.

계란의 경우 1999년도와 2000년도 현재까지 수입된 계란이 약 5백만개에 이른다. 이 수량은 우리나라 일일 계란 소비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에 불과 하지만, 계란 가격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며, 2000년도중 계약된 1억개의 물량이 아직 반입되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시장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증가되어 국내 생산분의 소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가격 형성의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ND, IB, 가금인플루엔자, 티푸스 등 각종 질병이 만연하여 그 어느때 보다 많은 피해를 보았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후반기부터는 돼지가격이 폭락하면서 닭고기 가격 또한 동반 하락하여 생산비 이하의 가격을 형성하였으며, 국제원유가격 상승으로 원가부담을 가중 시켜 어려움을 느끼는 현실하에서 각종 정책자금의 상환으로 형용할 수 없는 이중고를 겪은 한 해였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하에서도 중요한 것은 양계인들 스스로 자구적인 위기 극복 의지와 앞으로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실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유통관련 업체나 소비자는 생산자보다 한 발 앞서 새로운 정보를 숙지하고 있다. 이제

는 과거와는 다른 생산기반이 필요하다. 소비자 욕구에 충족하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이 필요한 것이다.

새로운 사육기술을 개발하여 생산비를 절감함은 물론 안전축산물 생산이 필요하다. 산란계와 육계분야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요소에 대해서 몇가지 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신란계 부분에 있어서 첫째, 산지 수집상 중심의 유통경로를 집하장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여 계란 고시가격과 실제 수취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생산농가의 불신과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구조에서 나타나는 소비감소 등의 요인을 해소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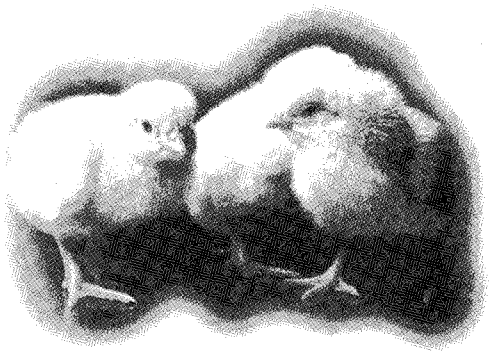
둘째, 계란의 등급화를 현실화하여 농장이나, 집하장별 브랜드를 개발하고, 제품의 차별화를 유도함은 물론, 수입란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생산자가 자조금을 조성하여 수급조절 기금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른 법적근거 확립에 심혈을 기울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매비축자금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수매가격과 비축후 판매되는 차액 부분을 최소화하여 자율적인 수매비축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다섯째, 수급 조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안정된 사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하며, 양계 업계의 숙원인 법정 전염병 발생시 살처분보상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육계 산업의 경우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육비 정산방법에 있어 절대평가제 방식에서



상대평가제로 전환되는 사육계약서의 기준이 선두 계열업체의 계약 내용을 표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 객관성과 통일성이 결여되어 계열 주체만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바, 생산농가 보호 및 분쟁해소 차원에서 표준계약서 정립과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며, 생산농가도 계열주체는 이익을 창출함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 바 생산농가의 입장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상호 보완적인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간다면 향후 우리 양계산업은 결코 전망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선진 축산부국과 같이 이제는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 패턴에서 닭고기와 같은 백색육을 선호하는 쪽으로 소비성향을 바꾸고, 사육기술을 향상시켜 양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감은 물론 유관기관과 연대하여 양계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과 건강식품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양계인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양계